



[혁신으로 승부건 현대차] 현대차 야심작 '아이오닉5' 공개 임박 "테슬라 한판 붙자" 03



Economy

코스피	3107.62 (0.00)	코스닥	965.11 (0.00)
금리 (우대금리)	0.996 (+0.011)	환율 (USD/원)	1105.90 (-1.70)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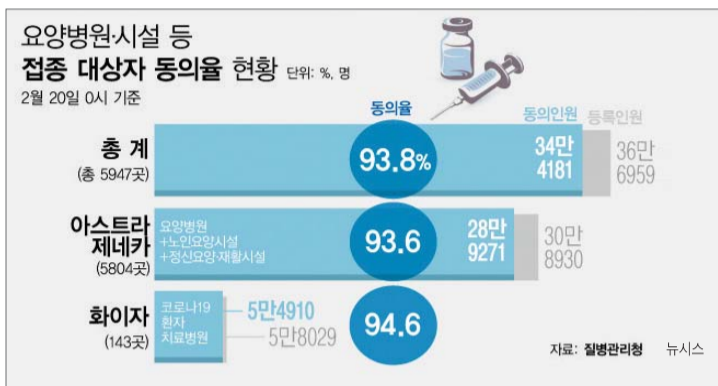
# 코로나 1년여 만에... 반격의 서막 AZ 26일, 화이자 27일 국내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 동의율 94% 달해 내달 말까지 1차 접종 완료 화이자 백신, 26일 국내도착 의료진 대상 27일부터 접종

이번 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내 첫 코로나19 접종을 맞겠다고 동의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19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백신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팬데믹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국제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착 다음날인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



도 물량은 5만8500명분이다. 지난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143곳의 접종 대상 인원 5만8029명 중 94.6%인 5만4910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즉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예방접종센터 등 5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된다. 추진단은 1주차에 수도권 소재 종사자, 2주차에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비수도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은 3

월 중 마무리하게 된다. 화이자 백신에 앞서 국내 첫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처음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접종 대상자는 입소자 4만3303명, 종사자 22만8828명 등 총 27만1231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 대상자 동의

여부 등을 파악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접종 대상자 30만8930명 중 28만9271명(93.6%)이 동의했다. 나머지 2만2778명은 접종을 거부했다. 추진단은 접종 명단을 먼저 확정된 뒤 오는 23일까지 유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처음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오는 24일 75만명분이 출하된다. 이 백신은 경기 이천 통합물류센터로 이동하고 25일부터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각지로 본격 공급된다.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배송 5일 이내에 자체 접종하고, 의료진이 없는 시설은 시설별로 계약·협약을 맺은 위탁의료기관 등의 의사나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社告

## 메트로경제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1

###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오는 3월 17일(수) '2021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안갯속입니다. 코로나19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새로운 모색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똑똑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은퇴 준비와 재테크,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2·4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등을 중심으로 알토란 같은 강연이 펼쳐집니다.

- ◆ 행사명 : 2021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
- ◆ 일 시 : 3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40~14:00)
-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포근한 날씨에 날들이 서울 최고기온이 17도를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이 날들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 “大·中企 동반성장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원 이사장

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작동 원리이자 현재 한국사회가, 더 나아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2021년이 어느덧 봄을 알리는 3월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1년 넘게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 경제는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느라 우리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능력, 즉 홍익인간과 나눔정신 등을 간과해왔다”면서 “동반성장의 개념은 매우 넓고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런데 인위적 전염병 퇴치와 싸우는 사이 더욱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간, 계층간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짧은 시간 압축성장한 탓에 불평등·양극화가 극심한데,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트로신문과 설 연휴 전인 지난 8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다.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동반성장 연구소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 정운찬 이사장은 이같은 현상의 궁극적인 해법으로 ‘동반성장’

정 이사장이 언급한 중소기업 범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정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불평등 완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중기 과제로 중소기업 육성과 노동시장 정상화를, 장기 과제로는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사회 혁신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각각 꼽았다. /김승호 기자 bada@

## 정부, 쌍용차 지원 나서나... ‘P플랜’이 관건

법원, 회생 개시일 보름 유예 내달 중순까지 ‘P플랜’ 신청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쌍용차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쌍용차를 직접 지원해 협력업체를 살리는 길이 고용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쌍용차가 지원을 받아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 추진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26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주주(마힌드라 그룹)와 새로운 투자자(HAAH 오토모티브), 산업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된 쌍용차의 회생

개시일을 유예하고 보름 가량을 더 준 상황이다. ◆산업은행 지원, 명분 있어야 P플랜은 강제채무조정인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규 자금조달이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대주주와 새로운 투자자,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합의하면,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만 신속하게 판단한다. P플랜을 위해 우선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 ▲잠재적 투자

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산업은행과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위해 쌍용차는 인도중앙은행에 신청한 마힌드라의 지분 및 채권 삭감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HAAH는 마힌드라가 보유한 쌍용차 지분을 현재 74.65%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